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2008년 4/4분기, 미국 생명보험 신규판매 큰 폭 감소

□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센터인 LIMRA에 따르면 2008년 4/4분기 미국 개인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% 감소하면서 1951년 4/4분기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함.

- 4/4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신계약 보험료는 2008년 전체적으로 7%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 또한 집계기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LIMRA는 설명함.
- 종목별로는 유니버설보험이 23%나 감소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의 경우 4/4분기 18%, 연간으로는 17%의 감소폭을 나타냈고, 정기보험(term insurance)의 경우도 4/4분기 3%, 연간 2%의 감소를 나타냄.
- 그러나 종신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개인 생명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3/4분기 7% 성장에 이어 4/4분기에도 2% 성장하면서 연간 2%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냄.

□ 한편 연금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 하였으며 특히 정액연금(fixed annuity)은 2008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
- 정액연금의 4/4분기 매출액(sales)은 전년동기대비 79% 증가하였으며 2008년 연간 총 판매액은 1094억 달러로 조사됨.
- 반면 변액연금은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집계이후 가장 큰 폭인 30%나 하락, 2008년 연간으로는 15% 감소하고 총 판매액은 1556억 달러를 나타냄.
- 전체연금 매출은 변액연금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액연금이 급성장하면서 전년대비 3% 증가한 2650억 달러를 나타냄.

(Cyber InsuranceNews 3/9)